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 0세 월 100만 원 · 1세 50만 원

0세 30만 원 · 1세 15만 원 인상… 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 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을 일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 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여랑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 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이정복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CES 2024 대전관 등 참관

박희조 동구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拉斯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I) 전시회 'CES 2024'에서 베네시안엑스포 내 유레카파크에 마련된 대전관과 대전대학연합 전시관을 방문했다. 'CES 2024'에는 우리나라 780여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대전권 7개 대학도 부스를 내고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전 동구청>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계획에 상인들 큰 반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주상인들이 사용기간 유예를 요청하며 대전시의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로 1번가운영위원회와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 100여명은 11일 대전시의회로 비에서 관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 공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방적 통보”라며 경쟁입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상가가 만들어진 1990년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고, 당시 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는 계약만기 이후에도 물이 계속 요구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조항에 의거해 2010년, 2014년, 2019년에 기간연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4항 1호에도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된 코로나19로

지하밀집시설이라는 특성상 시민들의 이용 희피와 영업 제한, 매출 액의 극단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

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개별점포 경쟁입찰은 시장이라는 특성, 종소 상인의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상반기 임시청사 마련

과기정통부·행안부 '특별법'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조직·예산·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우주항공청 5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 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우주항공 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도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신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업무와 사업, 산업 육성, 국제 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 모두 정부 차관으로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I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우주항공청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은 5

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 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 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 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 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국내외 전문 기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주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임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2023년 7위 수준→2045년 5위 목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2045년까지 우리나라 우주항

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우주항공 일자리를 50만 명(개) 이상 창출함으로써 2023년 1%(10조 원) 수준인 우주항공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45년에 10%(420조 원 규모) 확대하고, 관련 정부부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년 0.04%(700억 원)에서 2045년 0.2%(4조 원 수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주항공 기업 수는 700개, 우주항공 일자리는 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주항공 100대 기업도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등 현재 3개에서 2045년 10개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톡톡/인스타 DM
메일-clablab_10@naver.com
문자전화-070.8098.1834

이낙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다”

민주당 탈당... “다당제 실현, 개헌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이낙연 <사진>
진> 전 더불
어민주당 대
표가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특
권 없는 정치’
와 ‘성역 없는 법치’를 기조로 앞
세운 신당 창당과 함께 원칙과 상
식의 의원 등과의 협력에 나설 계
획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회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4
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
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
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
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의 배경으로

민주당의 변질을 꼽았다. 그는 “민
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
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
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
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
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
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내 비판자
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
국에서 ‘수박’으로 모별 받고, ‘저
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자의 ‘후목불가
조(朽木不可雕·썩은 나무로는 조
각을 할 수 없다)’를 언급하며 “대
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협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
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
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
화국’을 거의 완성했지만 민주당
은 스스로의 시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자의 ‘후목불가
조(朽木不可雕·썩은 나무로는 조
각을 할 수 없다)’를 언급하며 “대
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협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를 통해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
이다.

이 전 대표는 “극한의 진영대결
을 뛰어넘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드도록 견인하는 새
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민
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
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서는 좌
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
요하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참여
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국민의힘 공관위 10명으로
출범…현역의원 이철규·
이종성·장동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
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비대위원장,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철규 의원 등
10명으로 이뤄진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
다. 이로써 지난 8일 임명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꾸준히 한 공관위가
오는 4월 있을 총선 후보자 공천 작
업을 총괄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장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
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장을 포함한
10명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계)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
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
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시무
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
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
종학 세계한인자치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 혜진 유엔 아동 기금
(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
사, 황룡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김정환기자

이광문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아에서 AI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혁신적인 정책 기획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
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대전평생학습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교육청 산하 4개 직속기관별 정책보고 및 추진방향 공유



원은 독서기반 창작·체험활동 및 문·예·체
교육서비스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한밭교육박물관은 교육유물 전시·수집·보
존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 확대로 체험중심 인성
교육 실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창의융합형 해
양수련활동 내실화 및 체험과 실천중심의 교육
과정 연계지원을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보
고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
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상호 연
계 협력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직속기관 간
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
진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이광문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

국내 최초 AI를 활용한 정책 기획의 새로운 장을 열다



준현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전, 현직 시의원, 기초의원과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광문 예비후보는 이 책을 통
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의 경험과 중구에 대한 깊은 애
정을 표현하고 현대 기술의 발전
과 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중구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참석한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출판 기념
회와 AI를 활용한 정책 시연은 단
순한 이벤트를 넘어, 대전 중구의
디지털 브레인을 위한 첫걸음
이다.”라고 선언한 후,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그들의 요구
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이택구 예비후보, 한국JC 부회장과 대담

한정민 한국JC 부회장 “청년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 ‘변화의 초석’ 되어달라”



은 도시, 대전’ 만들기의 초석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국JC부회장
인 한정민 회장의 방문을 감사드
린다”며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
마다 ‘변화’해야만 ‘희망’이 생
긴다고 느끼게 된다. 대전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행보를 펼쳐
겠다”고 환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운호 대전
JC회장(2022), 서진웅 북대전JC
회장(2024), 이병우 북대전
JC(2023)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기자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20대 총선서 세종을 출마”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정민 한
국JC부회장(2023 대전지구회장)
과 대담을 나누며 청년들이 먹고
살기 좋은 ‘미래의 초석’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부회장은
“이 예비후보께서 공직은 떠나셨
지만 JC와 함께 ‘청년이 살기 좋

이명수 의원, 한국유권자회 ‘최우수의정대상’ 수상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선정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식



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23년 외
통위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와 기
관의 심층적인 문제 인식 및 그에
따른 질의로 대한민국의 외교·
통일·안보·인사 등 각 분야 전
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
고 있으며, 특히 각 부처에 파견
되어 있는 외교 인력의 복지사각
지대를 개선하려 했다. 또한 꾸준
히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힘쓰며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병원을 이
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 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꼭 필요한
중진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는 2023 최우수의정대상은 2023
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치발전
과 국가발전 기여도를 한국유권
자중앙회, 정명대상 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
단의 겸종과 평가를 거쳐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2024년
새해 첫 수상인 만큼 앞으로도 아
산시민과 종교도민, 그리고 국민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석
열 정부 공약인 경찰병원 분원 설
립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국민과
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과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는 소
회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정대로 28-28 대동빌딩 7층

노종용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세종시 중소기업 현장방문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기업 방문 행보이다.

노 후보는 이날 방문에서 “세
종시 재정재원을 위해서는 세종
시로 유입을 검토하는 중소기업
들에 지방 중소기업이지만 세계
시장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부
가 협력을 마련해줘야 하며, 매출
도 올리고 레퍼런스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길을 세종시 차원에
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와 중소기업간 상

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과 함께, 경제여건에 대한 중
소기업의 체감 수준과 기업의 아
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
혁 등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
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논의된 현
장의 목소리를 꼭 드로우 한 공관위가
오는 4월 있을 총선 후보자 공천 작
업을 총괄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장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
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장을 포함한
10명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계) 핵심 인사이자 당 인재영입위
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
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동혁 시무
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
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
종학 세계한인자치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 혜진 유엔 아동 기금
(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
사, 황룡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김정환기자

복기왕 예비후보, 아산선도농민회와 간담회



“쌀값 안정화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반드시 실현돼야”

복기왕 예비후보가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 용퇴 의사 표명



“쌀값 안정화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반드시 실현돼야”

복기왕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권 행사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우리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권 행사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자재와 인건비,
불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값 안
정화 대책이 절실히”고 입을 모
았다. 또한, 적정 쌀값 보장에서
나아가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보
장제’ 등이 향후 국가 농업정책 방
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파악했다.

먼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농
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자재와 인건비,
불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값 안
정화 대책이 절실히”고 입을 모
았다. 또한, 적정 쌀값 보장에서
나아가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보
장제’ 등이 향후 국가 농업정책 방
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파악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자재와 인건비,
불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값 안
정화 대책이 절실히”고 입을 모
았다. 또한, 적정 쌀값 보장에서
나아가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보
장제’ 등이 향후 국가 농업정책 방
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파악했다.

“중심성성의 뜻 가슴에 새기며 더 좋은 유성 만들 터”

<衆心成城>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우리 1000여 유성구 공직자도 다 함께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뜻을 믿고 기슴에 새기며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협력과 상생의 구성을 펼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작은 것을 바꾸면 전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구정성과와 앞으로의 새해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2023년을 돌아보면 유성구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2023년 구민들의 성원과 참여로 많은 현안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민선 7기부터 일관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위생업소 난방비 ·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 성황리 개최,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유치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 확대(65→120개소), 초등돌봄인프라 확대 △지역 보훈기록의 숙원인 통합형 유성구 보훈회관 청사 건립 착공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건물 침수방지 차수판 등 지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의 온도를 높였으며, 구민과의 동행의 보폭을 넓힌 한해였습니다.

▲ 지난 1년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관련하여 국민청원과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쉽게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개정안 심사 결과, 기존 광역에서 받고 있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20%를 비상계획구역에 균등배분 하기로 결정했으나 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5개 기초지자체(유성구 포함)는 누락됐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누락된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인전을 위해 꼭 필요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전동행행정협의회와 또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24년 유성구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의 구정방향은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비전으로 구정 목표: △미래선도 △주민자치 △친환경 스마트도시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향하는 핵심가치: △지속가능 △민관협치 △민첩조직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은 미래도시 선도를 위한 분야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혁신 △마을혁신 △돌봄혁신 △문화혁신 등 4대 혁신에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2024년 구정 운영 시사성어를 중심성성(衆心成城)으로 정했습니다. 중심성성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미래혁신으로 도약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견고한 성(城)과 같다”는 뜻입니다.

▲분야별 혁신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혁신은 뭘까요?

The 좋은 창업 혁신은 청년이 모이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온동 · 궁동은 국내 과학기술의 메카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인접해 있고 KAIST와 충남대를 잇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입니다. 이 지역에 인적 · 물적 지원을 연결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전을 넘어 국내 대표의 창업 혁신 선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생태계 구축 포함 정례화, 추진협의체 운영 등 창업 지원과 공공일자리 확대에 힘을 모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혁신과 돌봄 혁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The 좋은 마을 혁신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을 거점 커뮤니티공간 확충으로 소통협력 기반 조성에 나설 것입니다. 다시말해 걸어서 10분 이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친환경 · ESG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머물고 싶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마을자치 선도도시로서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특히, 졸졸한 아이돌봄체계에서 노인 · 의료 돌봄체계까지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개소),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 의료 · 돌봄 통합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저소득 · 이동양육 지원확대를 통한 소외됨 없는 복지체계 기회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한울타리 보호, 출산장려금 · 영아수당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만큼, 아이에서 노인까지 따뜻하고 졸졸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활성화 강조하신 4대 혁신 중 문화 혁신이란 무엇인지요?

The 좋은 문화 혁신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안전도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화번영은 일상 가끼이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조성하는 것으로 계절별 · 마을별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업그레이드,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건립하는 것입니다.

생활문화 향유 기반 확대로 지역주민 문화욕구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체육센터 준공, 주민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겠습니다.

마을 가끼이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친수공간을 방동에 조성하고, 안전에 인심을 더하는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유성의 브랜드이자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사계절 축제, 그리고 마을별 축제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오감(五感) 민족의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시켜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인 유성온천구 활성화를 위해 유성온천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콘텐츠 발굴에 주력하고, 운천을 활용한 힐링 공



▲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구정성과와 앞으로의 새해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간이자 랜드마크인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과학의 도시답게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이 눈에 띠는데요 지난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실증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실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은 실증 전담부서 지정, 조례 정비 등 유성구 테스트베드 활성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지난해 36개 사업을 협의해 26건 즉·간접 지원하고, 13건 실증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도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 유성만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유성구는 광역도시 최초 ‘녹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을 확보하여 종시입비 50억원 3년에 걸쳐 친환경복제친화도시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온천문화공원 ~ 충남대학교 오거리 ~ 유럽공원 일대에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유성천 등에 조성 중입니다.

방동 ·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하고 있는데 방동 수변공간 조성 / 테크 및 음악분수 등, 성북동 숲속 아영장 조성(1만 2,000m²), 산림욕장 시설 개선, 성북동 유아숲 체원, 산림레포츠의 숲, 치유의 숲길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천 · 유수지 활용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일환으로 주요하천 6개소 특화설계 추진 / 문화쉼터, 그늘쉼터, 공중화장실 등 유수지 활용 / 반려동물 놀이터, 공영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실증화단지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하고 있습니다.

▲ 유성에 많은 국책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치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성의 광역 국책 도시개발 혁신사업으로 △ 탑립 · 전민지구 국가산단 개발사업 △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부자사업 △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 과학벨트거점지구(신동 · 둔곡) 개발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 인천 친환경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죽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호국보훈 파크(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나노 ·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도 치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끝으로 구민들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은 민선 7기부터 진행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전반 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작은 것을 바꾸면 전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많은 분이 함께하는, 동행(同行)의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2024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천여 유성구 공직자도 다 함께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뜻을 기습에 새기며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하늘로 비상하는 용의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답=이정복 편집부국장 · 정리=김태선 기자

●정정●

사업소 및 동연두방문



이동한 부구청장(총구청장 권한대행) = 12일 오전 10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시작되는 '사업소 및 동연두방문' 참석.

금융우대서비스업무협약식



최충규 대덕구청장 = 12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업무협약식에 참석.

2023 복지·문화분야 성과 빛났다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지난해 복지·문화 분야에서 7개의 우수기관 표창 상수과 9개 공모사업에서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덕구에 따르면 우선 복지 분야에서 총 7개의 우수기관 표장을 수상한 것은 물론 4개의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총 29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기여를 했다.

특히,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보육정책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방문의료지역센터,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 주거지원, 건강관리 등 지역 내 다양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울려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겨울철 복지위기구 발굴 및 지원 평가 △노인·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기초연금사업 평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실적 등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대전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어르신 돌봄 놀이터'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복지 분야에 있어 문화 분야의 성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대청호를 기반으로 중부권 최초 400여대 드론쇼, 미디어파사드와 아간 경관조명, 대청호대역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누적 관람객 63만명의 대기록을 세우는 등 대덕불빛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회덕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대덕불빛축제 대전시 대표 축제 선정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총 5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행적을 이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복지·문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라며 "갑진년 올 한해도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겁고 함께 행복한 대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市, 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 견인료 기본 3만 원

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 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먼저,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선 기자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종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또는 지로(wwww.gt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괄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8만 4,017건으로 집계돼 46.7%의 선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50백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성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약 4.5% 할인

1월 중 선납 시 약 4.5%… 3월·6월·9월에도 각각 약 3.7%·2.5%·1.2% 공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도에는 연납공제율이 5%로 적용됨에 따라 1

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받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약 3.7%, 2.5%, 1.2% 공제혜택을 적용받는다.

납부대상은 2024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소유자 중 2023년 연납 기준 납세자 및 신규신청자로 신청은 16일

부터 가능하며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w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 남부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방문카드납부) ▲전자납부번호로 CD/ATM기 납

동구, 공공도서관 독서교육 다양화 및 확대 운영

행BOOK한 독서 마라톤 대회 참여 대상 확대하며 주민 요청 사항 반영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독서 교육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선다. 11일 밝혔다.

먼저, 관내 가오·용문·자양·홍도·판암·무지개 도서관에 분야별 다양한 도서 자료 총 45만여 권을 확보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

도록 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독서 교육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 최초로 시행한 디자녀 도서 대출 권수 혜택(디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을 계속해서 시행하며, 올해 동구청 광장에 온 기족이 독서 감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야외도서관을 운영해(총 4회

예정) 가족 독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민 호응이 높았던 저자 초청 강연, 동구 책 문화 어울림대, 부모 독서아카데미 등 독서 프로그램은 올해도 운영한다.

특히,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동구 행BOOK한 독서 마라톤은 참여 대상에 유치원생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생애 초기 독

서 운동인 등구형 북스터트는 책 꾸러미 수령 증가 및 초등 저학년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조금 더 책을 가까이하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위촉장 수여

중구, 취약계층 다양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현)는 11일 취약계층을 위해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2017년부터 7명의 무료봉사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한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 관련 상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스마트월가든' 오픈

"근로자들 피로 및 우울감 감소 등 효과 기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이하 한수정)은 1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북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월가든'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월가든은 지난 2020년부터 녹색 공간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수정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월가든은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과 식물 자동 관리기술을 통해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정원으로, 사



▶ 11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좌측 네번째)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좌측 다섯번째)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이 스마트월가든 오픈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정원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공동 홍보캠페인을 비롯해 도시열섬 완화, 탄

신학기 가방 & 슈즈 특집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정승우)은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생가방 & 슈즈 특집 행사를 선보인다. 더불어 정기세일 2주차를 맞아 겨울 추위에 대비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아우터 특가 행사 및 따뜻한 잠자리를 선사하는 리빙 브랜드 행사까지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신학기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 및 아이들을 위한 학생가방 & 슈즈 특집 행사가 진행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8일까지 6층 본매장에서 2024년 SS 신학기 백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팩 뿐만 아니라 패키블로드백, 로고 파우치, 에어팟 파우치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어 더욱 활용성이 좋은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파우치를 선사하는 리빙 브랜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먼저 침대 브랜드인 시몬스에서는 이사 & 웨딩 퍼레이스를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매트리스를 품목별로 최대 20% 할인하며, 특정 침대 프레임과 베딩세트 구매 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12일부터 14일까지는 구매 금액 대별로 5%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씰리침대 매트리스를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하며, 베딩세트 구매 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구매금액 대별로 배기, 침구세트 등 브랜드 자체 감사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침구 브랜드인 세사에서는 2023년 F/W 인기 차렵 및 차렵세트를 특가에 제인하며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송병배기자

●정정●

노인일자리참여자 활동교육



최재구 예산군
수= 12일 오
전 9시 20분
노인종합복지
관에서 열리
는 노인일자
리 참여자 활동교육에 참석.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총회



이용록 홍성군
수= 12일 오
후 6시 홍성명
동상가 커뮤
니티센터에서
열리는 홍성
군지역발전협의회 총회에 참석.

제21회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

1월 20일 개막… 3주간 대장정

대한민국 1% 미식가들이 1년을 기다려 온 '제21회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오는 1월 20일 홍성 남당항에서 개막식을 열고 3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축제 첫날인 1월 20일 오후 3시에는 남당항 특설무대에서 트랩페스티벌과 팽고리 클라보레이션 공연과 성악·중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신동 박예빈과 장구의 신 박서진, 전미경, 조승구, 임영미의 공연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놀랄퀴즈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군에서는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 서해안 대표 사진 명소를 조성하여 외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으며,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홍성군 관광 랜드마크 시설인 홍성스카이타워의 야간경관조명을 오후 10시까지 사전에 선보이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새조개 1kg(살수율 400~500g) 온라인 판매는 70,000원, 식당에서 먹는 것은 80,000원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훌륭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1일 2024년 환경녹지국의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다운 입지를 결정·고시하였고, 국제정원도시 평가 결과 최고 등급(Blooms Silver)을 획득하여 세계 속의 정원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순환 도시를 위해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및 지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강한 산림과 행복한 도시숲을 만들기 위해 도시 바람길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고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추진과 정원속 미래도시 세종을 만든다. 내실 있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실행 계획 수립을 원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도시 원성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미래진료수도 세종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어촌 소멸 막고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

道, 보령·서산·태안 3개 어촌지역 해수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충남도는 보령·서산·태안 어촌지역 3곳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4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소멸을 막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촌의 경제·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이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 어촌지역 300곳에 3조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충남 3곳을 비롯해 총 31곳을 선정했다.

도는 전국 대비 4.7%의 열악한 어항 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업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어촌지역은 규모와 특성

에 따라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400억원(민자부자 100억원)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00억원 △유형3 어촌 안전 기반 시설 개선에 50억원이 지원된다.

도내 3개 어촌지역 중 서산 팔봉권(호리항·개목항)은 유형2, 보령 장은항과 태안 정산포항은 유형3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서산 팔봉권역 일원은 △어촌스테이션 및 웹기조직 운영 등 24억원 △행복스테이션 건립 23억원 △어항안전개선 23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보령 장은항과 태안 정산포항은 낙후된 어항시설 개선을 위한 방파제 정비 및 선착장 정비 등에 각각 50억원씩 지원받는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기반시설 조성 및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여 등 어촌사회 지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 등으로 어촌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모에 대응한 결과 도내 어촌지역이 대거 선정 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향후 공모사업에 도전을 기해 지역 어촌에 활용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겨울철 축사 화재 미리 예방하세요"

예산군, 축산농가의 안전관리 및 수칙 준수 당부

예산군은 겨울철 누전 및 열선 고열 등 전기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축사 화재는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노후화된 전기 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 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며, 특히 폐지나 닭을 사육하는 축사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기반시설 조성 및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여 등 어촌사회 지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 등으로 어촌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모에 대응한 결과 도내 어촌지역이 대거 선정 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향후 공모사업에 도전을 기해 지역 어촌에 활용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의뢰 △열기구 사용 시 문어발식 선 연결방지 △전기 시설 주변 칭결 유지 △축사 내 적절한 습도 유지와 화재진압 소화 장비 비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축사 내부에 쌓아 놓은 벗짚은 퇴사로 이동해 화재 예방 및 소방 차량 출동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의 주도적인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임을 항상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로

홍성군, 농촌 고령화 대응

100종 535대 농기계 50% 할인 금액으로 임대 가능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인력 부족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보유한 100종 535대의 농기계를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8400만원에 달하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자격 교육장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기종은 3문 미만 굽작기, 지게차, 로더에 한한다.

감면액을 적용하면 농업용 굽작기 6만 5천원, 관리기 9천원, 수확기 1만 4천원, 털곡기 6천원에 임대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2024 과수·원예 분야

29개 사업 145억 지원

예산군, 시설 현대화·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창출 육성 등 박차

예산군이 농업 소득을 견인할 전략 작물인 과수·원예·특작물 분야 지원을 전년 92억 원에서 57% 증액해 29개 사업에 145억 원(종사업비 기준)을 투입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세부 사업 별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군은 2024년 사업추진을 통해 과수 원예 분야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소형 농기계 분야는 △원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지원(4억 2700만원) △원예작물농산물건조기지원(3억 원) △원예작물생력화장비지원(3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청년농 군내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작물 재배 역량 및 영농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주요 과수·원예·특작물 분야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말까지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접수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시에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과수·원예 분야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농업 소득을 견인할 시과, 팔기와 토미토, 쪽파, 수박 등 고품질 과수·원예작물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세종시, 24시간 도서대출·반납 'U-도서관' 확대 설치

어진작은도서관 1층 아외 신규 설치… 총 11곳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무인 도서대출이 가능한 '어진동 U-도서관'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어진작은도서관 1층 아외에 문을 연 U-도서관은 365 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진동 U-도서관은 어진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외에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고 편리하게 신간, 인기 도서(베스트셀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 지역 U-도서관은 기존 ▲ 종촌동 ▲ 보람동 ▲ 싱싱장터(도



민들이 손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U-도서관과 같은 생활 속 도서관을 운영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예산군, 지역주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예산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 일까지 '2024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신규 이용자 256명을 모집한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기획·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에게는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총 5억 4880만원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신청 대상은 중위 소득 140~160% 이하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는 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필수 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별 일정 수준의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새해 전동면에 펴지는 나눔 물결

송성정미소 외 3개 기업·사업체 쌀 10kg 54포 등 전달

세종시 전동면에 새해부터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춘 송성정미소 대표는 지난 10일 전동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10kg 30포를 기탁했다.

(주)디엘이엔씨와 (주)부강티엔씨에서도 각각 쌀 10kg 12포씩 총 24포를 기탁했고 뒤옹박고을에서는 성금 1만 원을 전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김태선 기자

기탁받은 물품과 성금은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과 연계해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사회복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종복 전동면장은 "연초부터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042)538-3030

daejeontoday.com

우리/동/네

천안 북면에 골프장 3곳 신·증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산림·수질 훼손’ 환경훼손 이유로 강하게 반발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홍승주)은 11일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리며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홍승주 대표이사는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지난 해 공공급식 영역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7년 연속 ‘1등급 안심 학교급식 공급센터’로 선정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천안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 법인도 나눔에 동참하기로 하고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은 2013년 설립되어 천안시로부터 학교급식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214농가와 함께 기획생산 및 자부제 구축을 통해 신규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일봉동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천안시 일봉동 제1기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일 위원 위촉식을 열고 출범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위원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개최, 자치사업 추진 등 주민 주도형 자치 활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용경 일봉동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성2동, 연말연시 맞아 각계각층

적십자회비 기탁 행렬 이어져



천안시 부성2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계각층의 적십자회비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성2동노인회(20만 원), 새마을부녀회(20만 원), 주식회사 동서프라텍(20만 원), 주식회사 희동(200만 원), e편한세상두정2차아파트 주민일동(85만 원) 등이 적십자회비 총 325만 원을 천안시 부성2동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 전달되어, 우리지역에 발생하는 재난재해 구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원은 비롯한 기탁자들은 “이번 적십자회비 기탁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 전한 것으로, 이 성금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김성경 원성2동장, 유관기관 경로당 방문 원성2동 김성경 신임 동장이 11일 부임 후 첫 일정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김 동장은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며 동절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수칙과 주요 복지사업을 안내했다.

우리/동/네



충남 천안의 청정지역인 동남구 북면에 골프장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북면의 골프장 세 곳을 신·증설하는 개발계획은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병천천 등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다. 천안시는 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신·증설 대상지는 □골프장이 증설을 추진하는 운용리 489번지 일원 196만 2062㎡(18홀 + 18홀), ▢골프장 신설이 진행 중인 대평리 산28번지 일원 140만 5171㎡(27홀 + 관광휴양시설), ▣골프장이 확장을 추진하는 명덕리 산8-1번지 일원 98만 4411㎡ 등으로 모두 북면에 집중돼 있다. 한 골프장 쪽은 “천안시 흥당 인구수는 골프장이 있는 충남시·군 가운데

2번째이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 추가로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골프장 증설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 50.4%, 3등급이 49.6%에 달하며 이곳을 개발하면 ▣5천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이다. ▣골프장 확장 부지는 경사도가 높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신설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 50.4%, 3등급이 49.6%에 달하며 이곳을 개발하면 ▣5천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이다. ▣골프장 확장 부지는 경사도가 높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골프장 증설부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침석

2024 읍면동 방문



박상돈 천안시장
= 12일 오전 10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리는 2024 읍면동 방문에 참석.

‘호두과자’ 하면 천안

품질 인증제 도입 추진

‘호두과자 도시’ 천안시가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타 지역 호두과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천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게 제조한 호두과자를 인증하는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품질 인증제 도입은 천안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상표를 출원해 인증대상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추진을 앞두고 호두과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장호 대행제과협회 천안시지부장을 비롯한 호두과자업체 대표 30여 명이 참여해 호두과자 품질인증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천안시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타 지역 자체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934년 호두과자를 시작으로 천안에는 70여 개의 호두과자 전문점과 300여 개의 빵집이 있다. 천안시는 빵의 역사와 인프라를 활용한 ‘빵의 도시’ 브랜드 구축 위해 3년째 ‘빵빵데이’ 축제를 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호두의 역사 문화 홍보 등 다양한 브랜드를 제작하고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호두 시대인 천안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천안에서는 149농가가 호두재배에 참여해 158㏊의 재배면적에서 112을 생산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추모공원, 회장 횟수

일 39회로 확대 운영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은 천안추모공원 회장로 1기 신설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회장 횟수를 일 39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회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대기오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천안추모공원에 천환경 회장로 증설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오는 15일부터 회장 횟수를 39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천안시민 우선 회장 예약 가능 횟수도 기존 12회에서 13회로 늘려 회장 예약을 못해 4일장을 치르는 등의 불편을 방지할 예정이다.

한동흠 사장은 “체계되는 회장수요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택 신입 서북구청장

새해 맞아 경로당 현장방문

이종택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지난 10일 분회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택 구청장은 이날 경로당 순회하며 어르신들께 새해인부를 묻는 한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 어르신은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택 구청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시을 예비후보, 총선 전략공천 움직임 비난

이정만 국회의원 천안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경선을 관리해야 할 주체인 중앙당이 경선 경쟁 상대가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해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중앙당의 일방적 내리꽂기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당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이고, 인생을 걸고 경선에 임하는 후보들에게 치명적인 이점을 주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가 문제 삼은 장면은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이었다. 이날 기탁된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 전달되어, 우리지역에 발생하는 재난재해 구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원은 비롯한 기탁자들은 “이번 적십자회비 기탁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 전한 것으로, 이 성금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두정도서관 ‘오감만족 두드림(Do-dream) 스페이스’ 운영

블록·레고, 증강현실기반 미러링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 운영

천안시 두정도서관(관장 이충미)은 미취학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을 위한 어린이체험실 ‘오감만족 두드림(Do-dream) 스페이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에 누구보다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 민을 바라보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하지만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를 통해 전략공천했지만 결과는 천안 3석 모두 패배했다. 이후 지역에서 피눈물 나는 활동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손발에 동상을 걸려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면서 “그런 저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또다시 짓밟으려 하는 것은 정치의 세계가 비정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정만 후보는 “자유와 자율, 창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자민주주의라고 믿으며 신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짜릿왕이었던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을 중시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실망감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앙당은 지금이라도 저에게 도동한 대우를 하고 정황에 비해 후보가 훌륭한 인재라면 비례대표로 공천하던지 다른 지역구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정만 후보는 “더 이상 물려날 곳이 없다. 두 번 죽지 않는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곳에서 물려나지 않고,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새기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안=김정환기자

로 운영되고 그 외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단체는 사전 전화 접수로 개인은 현장 접수 후 이용이 가능하다. 자체 시장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www.cheonan.go.kr/lbd0)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1-521-3903)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충남소방, 신임 소방공무원 85명 임용식 각종 재난현장 최 일선에서 충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정식 소방관으 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충남소방본부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를 비롯해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신임 소방공무원 85명과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서천소방서, 장항전통시장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서천 소방서(서장 김영배)는 자율적인 안전점검 문화 정착을 위한 장항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 남·여의용소방대 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당진소방서 당진 남·여의용소방대는 지난 10일, 당진의용소방대 인업체험관을 방문한 당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화된 화재 등의 재난에 맞춰 재난약자인 장애인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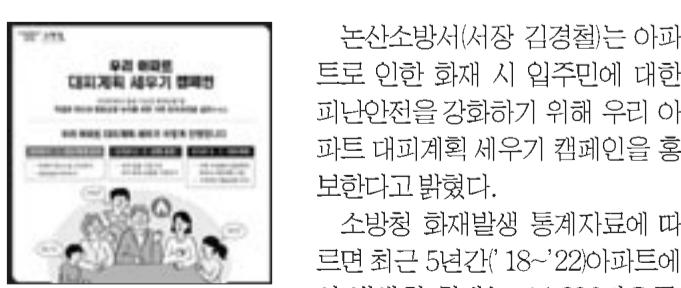
건양대,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건양대 학교총장 김용하는 8일부터 12일까지 건양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와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장애를 기진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청과(주),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 기탁 대전청과(주) 대표 송인석은 11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전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 월동비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논산소방서, 화재 시 입주민 대한 피난안전 강화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홍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은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절한 상황판단과 피난행동 요령을 숙지하기 위한 가족 토의 과정이다.

논산=김성구기자

5월까지 빛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2천만원 이하 연체자, 5월 말까지 상환시 신용회복

정부와 국민의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를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의회' 후 취재 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소액 채무를 연체했어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 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흥윤기 기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 가능합니다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 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흥윤기 기자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이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한 소액 연체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산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겨울철 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등 기연성 물질이 많이 있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용접 작업 현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기연물 제거 ▲작업 내 통풍 환기 철저 등이 있다.

김종욱 서장은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금산=이정복기자

행안부 '공정선거 상황실' 본격 가동

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지원·관리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를 지원·관리하는 '공명선거상황실'이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1일 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상황실에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이 상주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

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 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도 겸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의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제를 방지하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의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제를 방지하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준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무단 녹음·촬영 및 배포 행위 엄벌해야”

한국교총, 대법에 탄원서 전달 및 불법 도청 엄단 촉구 성명 등 활동

11일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 대행 여년실)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유명 웹툰 작가들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후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 녹음, 실시간 청취, SNS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할증 협박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

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의 교권, 음성권과 조상권, 사생활 보호권,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 텁원서를 전달하고, 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교원은 법령에서 금지한 아동

학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총은 “교권 4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의 약 40퍼센트 수준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지만 최근 3개월간 약 150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신고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추가가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아산YMCA와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11일, 아산YMCA와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수탁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아산YMCA는 2019년부터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며, 2021 충청남도 운동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해 아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 센터는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진로직업체험 지원 ▲‘꿈길’(진로체험지원전선망) 관리 운영 ▲진로직

업체체험 발굴·관리·인증 및 활용 지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아산시 진로 교육 보조사업 수행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산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여량과 진로 탐색성을 키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기대하며,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진로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산=리향주기자

대전교육청, 제9기 열린기자단 발대식

대전 교육의 새로운 목소리, 열린기자단 22명이 SNS로 소통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장 설동호)

은

11일 시교육청 801호 회의실에서 ‘대전 광역시교육청 제9기 열린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열린기자단은

중·고생, 대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시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대전 교육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한다.

또한 세제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전교

김정환기자

한서대 충청권 LINC3.0 협의회, 글로벌 산학협력 방향 모색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개최



업에 대비한 인재 양성의 체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포럼에서는 김봉문 한국 연구재단 산학협력실장의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의 방향과 모델”이라는 기조 강연과 조지아 공대 Alexander Lerch 교수의 “4차 산업 혁명 시대 디지털과 연관되어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산업의 확대” 등 국내외 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현성 회장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의 지원과 학생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LINC 3.0 사업을 수행하는 16개 대학이 적극 협력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예산교육지원청, 원명선정위원회 개최

2025년 신설 유치원 원명 선정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삽교목리에 개원될 새 유치원에 대해 지난 9일 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5년 개원 예정인 가정 ‘예怵 유치원’ 원명을 선정 확정했다.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3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교육 기관 및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원명 공모를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과 올해 1월 9일, 2차례 개최된 원명 선정 위원회 심의 결과 가정 ‘독리 유치원’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의미와 “나무를 심다”的 의미를 내포하여 나무를 심는 행위가 미래 지구환경을 위한 기반이 되듯, 유아를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육성하여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은 예怵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원명은 20일간의 행정에 고질차를 거친 후, ‘충청남도 도립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어 충청남도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종하 교육장은 “예산군민과 교육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학교 철저한 개원 준비를 통해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예怵 유치원(가정 ‘독리 유치원’)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 1808번지 일대에 7학급 104명 규모로 건립된다.

예산=박제화기자



공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교육 교습비

사교육 교습비 기준금액 변경 시행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이 지난 12월 15일 실시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교육 교습비 등의 변경된 기준금액을 9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교습비가 지나치게 인상되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항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기타 등) 10% 이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택현 행정과장은 “최근 여여 요인으로 크게 상승한 물가로 인한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습비를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교육청,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 돋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람교실 강사 모집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돋기 위해 ‘자람교실’을 운영할 강사를 모집한다.

‘자람교실’은 입학 직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배움과 인성의 자람을 돋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자람교실 강사 모집공고는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다.

자격 조건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경험이 있으면서

학생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sjky1001@korea.ac.kr)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방과후지원센터 자람교실 강사 모집 담당자 ☎ 044-320-1662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은진 교육협력과장은 “자람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능한 강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하나시티즌, 2024 시즌권 ‘원큐패스’ 판매

K리그1 흥경기 3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모바일 시즌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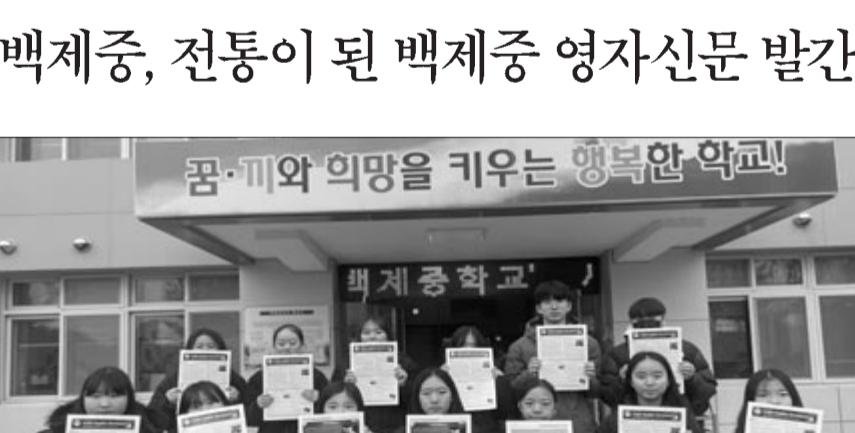
이권은 W코어석 13만원, W일반석 11만원, E코어석 9만원, S스탠딩석 8만원, ES석 8만원이다.

또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시즌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착순 구매자 대상 111명에게 랜덤 구단 굿즈가 증정되며, 흥개막전 선수단 출근길 팬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2024시즌 대전하나시티즌의 시즌권인 ‘원큐패스’는 모바일 시즌권 상품으로 하니원큐 앱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하니원큐 앱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추후 팔릴되는 당일권 티켓도 하니원큐 앱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 시즌권 ‘원큐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전하나시티즌 공식 홈페이지와 하니원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백제중, 전통이 된 백제중 영자신문 발간



백제중학교(교장 이준석)에서 2023학년도 되돌아보는 영자신문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17학년도에 시작되어 2023년까지 7회에 이어 발간하는 영자신문 프로젝트는 고등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어려운 작업의 완성은 백제중학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향하는 영어교육을 올곧게 구현하고 있다.

박지영, 정지윤 영어 교사의 일간 지도로 백제중 영자신문 자율동아리(1학년 김민지, 신예진, 안수인, 윤서영, 김수

부여=김성구기자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전문자료 책 사건 지역 뉴스 쇼핑 사이트 이미지 NIPC

사회적경제 확산에 13억여 원 투자

청양군,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16개 사업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16개 사업에 13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 8,100만 원 증액된 예산이다.

청양지역은 높은 고령화율(38%)과 낮은 합계 출산율(0.9%)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외부 유출 또한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이를 활용한 생산·판매·유통 선순환 시스템으로 이뤄진 공동체 중심의 연대 활동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선택했다.

군은 2020년 사회적경제 텁실한 이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군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70개소로 2019년 26개소 대비 두 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파운 유치, 사회적경제 창업 진진 대회,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질적 성장 또한 끌어내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우수상 수상(고용노동부)으로 '사회적기업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가선점을 확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군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 진진 대회(전국 공모) ▲주민 심(心)부를 꾼, '부르면 달려 가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구축 ▲달빛 마켓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컨설팅 ▲고향올레 사업 ▲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고도화 지원 ▲사회적경제 상생 투어 등이다.

이 가운데 고향올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충남도립대 협업 속에서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유도를 이를 계획이다.

또 군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한 고도화 지원에 이어 오프라인 판로구축으로 성장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파운이 오는 12월 준공되면 2025년 상반기 개소와 함께 선도(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의 본보기 상을 창출하면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하세요

홍성군, 4.6% 세금 공제 혜택 받으세요

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 발생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날짜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선 서버이관기 간인 1월 17일~21일을 제외하고 1월 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차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논산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열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0월 논산아트센터에서 2024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협의 및 실행기구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읍면동단위 뿐만 아니라 기구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문화위원회 활동, 미술계획 수립 및 실행, 자치사업 추진 등을 수행한다.

이번 위촉식은 논산시 15개 읍·면·동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새로운 임무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책임감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였다. 이날 위촉된 445명의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4년부터 2025년 까지 2년간 지역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오늘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지역의 문제 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시장은 또 "앞으로 허물을 벗고 비상하는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기 논산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죄연소 00년생부터 최고령 38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위택스·기상계좌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달 연납하는 군민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 소유자로 기준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회원할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에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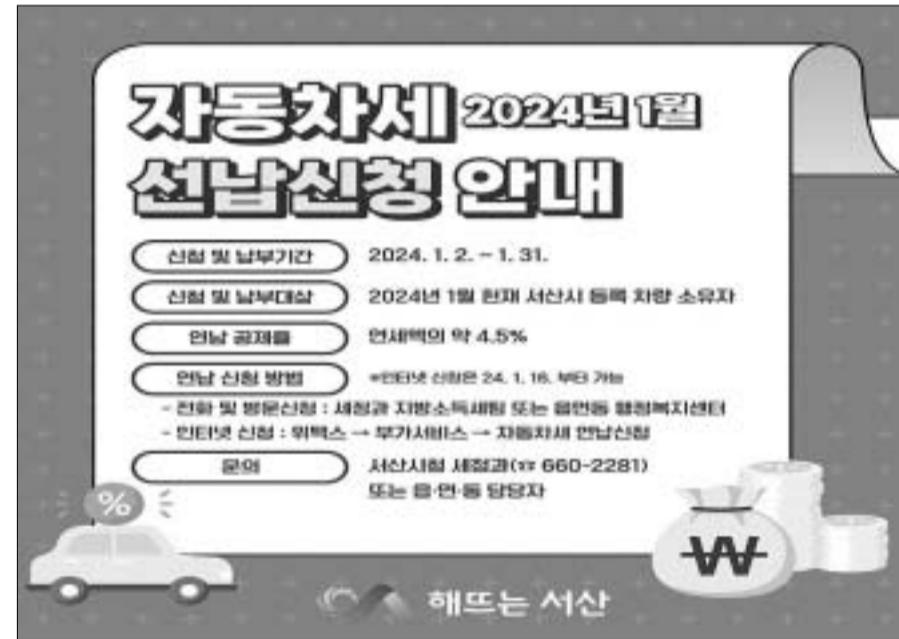
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제가 되지 않아 반드시 납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회망하는 경우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기자

서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7% 할인



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월 3.7%, 6월 2.5%, 9월은

1.25%로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재신청 필요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어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출납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김정환기자

부여군보건소-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효율적 한센병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



부여군보건소(소장 김점순)는 지난 9일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협약을 맺었다.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

생되고 조기 치료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센병에 대한 감염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호흡기를 통한 공기 감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밖에 피부를 통한 감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여군보건소는 매년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하여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2개 월마다 이동진료 및 가정방문, 의료관리, 대중홍보, 외래진료, 교육훈련, 재활사업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센병은 아직도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등록된 대상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자 강조하였다.

부여=김성구기자

2024년 당진사랑 상품권 판매 개시

오는 16일 판매대행점 영업개시부터, 모바일은 10시부터

당진시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당진사랑 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전년도와 같은 50만 원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판매 수량은 예산과 판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당진사랑 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마트나 대형 병원 등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농어민수당, 어르신 목욕과 이미용 상품권 등 당진시가 정책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류 당진사랑 상품권은 당진지역 내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한밭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1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연속 학부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심의위원회들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렵지만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고를가로 인한 학부교와 학생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나온(ON) 원예관리사 취·창업 과정 첫 걸음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 센터장 유우순, 이하 여성커뮤니티센터)은 10일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교육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관리사 취·창업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취·창업 과정은 지난해 11월 개관 후 취·창업 과정을 충전하고 여성 강화 교육, 문화·예술 및 여성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지난해 11월 개관 후 취·창업 과정을 충전하고 여성 강화 교육, 문화·예술 및 여성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 041-427-7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리량주기자

충남농업인대학·귀농대학 신입생 모집

도농기원, 2월 8일까지 전문교육 과정 학과별 교육생 모집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전문교육 과정인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의 교육생을 다음달 8월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대학은 100시간 내외 과정으로 치유농업학과·미래농업학과 각 30명을 모집하며, 귀농대학은 70시간 내외 과정으로 애열대작물학과 30명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농업인대학 치유농업학과는 치유농업 시설 품질 관리(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미래농업과는 농업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최고경영자(CEO) 과정으로 애그테크(Ag-tech)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미래 농업 선도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귀농대학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내

서 제배 가능한 신소득 작물 탐색 등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정

실용교육



박경구 아산시장 =12일 오전 9시 읍봉농협에서 열리는 '2024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장님 특강(벼, 올봄)', 오전 11시 아산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에서 열리는 '아산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 졸업식', 오후 2시 아산OG에서 열리는 '노량: 죽음의 바다 특별상영회'에 참석.

실용교육



오성환 당진시장 =12일 오전 10시, 7층 접견실에서 '희망 2024 나눔 이웃 돋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1시 30분, 송악농협에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실용교육



가세로 태안군수 =12일 오전 10시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태안읍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발전기금 기탁식



김돈곤 청양군수 = 12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청양군 농업 발전기금 기탁식에 참석.



당진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당진시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5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정보 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 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이뤄졌다.

당진시는 사전적 정보공개와 원문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또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개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함께 정보공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 연장 총력전

태안군, 10일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 열고 실행위원 50명 위촉·본격적 활동 전개



태안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세로 군수와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민 50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위원회 회의는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서산시까지 13개 지역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태안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12월 군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현행 계획상 총 연장 330km로 국비 3조 7천억 원이 소요된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 지정에 이어 지난해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남북 위주의 철도에 이어 동서 교통망 구축을 통한 중부권 발전이 기대되며, 태안군은 중부권 최서단인 태안까지 철도가 연결돼

야 진정한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완성된다고 보고 노선 연장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안의 경우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가 모두 통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노선 연장 시 열악한 교통

실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최종 서단연결로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 개발도 함께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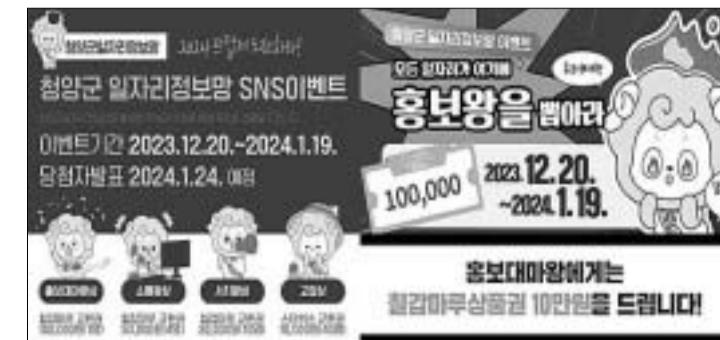
이날 위촉된 실행위원 50명은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군연장을 위한 서면운동 추진 등 대내·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태안군도 기세로 군수를 필두로 관련부처 및 상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세로 군수는 "동서횡단철도의 태안 연장은 열악한 태안의 실정에

비쳐볼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 중의 과업임이 분명하다"며 "태안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태안의 이름을 옮길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농촌 맞춤형 일자리 정보망 본격 운영

청양군, 구인구직난해소총력·19일까지 기동기념이벤트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농촌 맞춤형 일자리 종합플랫폼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 운영을 위한 군민 홍보에 돌입했다.

일자리 정보망은 지역 내 모든 일자리를 하나의 환경으로 통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군내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주요 특징은 전국 최초 농촌일손 기능, 군내 모든 일자리 통합, 최신기술을 반영한 반응형 웹서비스 구현이다.

전국 최초 농촌일손 연결 서비스는 농가의 경우 '일해주세요' 정보를, 농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드립니다' 정보를 휴대폰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일자리 통합기능은 청양군청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군내 공공기관, 기업, 워크넷, 임코리아, 알바몬, 알바전국과 같은 외부 채용공고를 연계해 제공한다.

정규일자리에서부터 시간제일자리까지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의 수요자 중심 정규, 시간제, 농촌 일손과 같은 형태별 일자리와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취약 계층,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대상별 일자리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반응형 웹서비스는 PC 태블릿, 모바일 이용이 편리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챗GPT)을 활용한 간편 이력서 작성과 관심 정보등록을 통해 실시간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지원정책과 귀농·귀촌 정보도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자리 정보망 본격 운영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구인·구직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프라인 일자리 정보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과 외부 인재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일자리 정보망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책자(종이·전자) QR코드, 전단지, 테마별 동영상, 포스터, 광고, SNS 현수막,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전문상담사를 전담 배치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까지 정보망 기동 기념 '눈 이벤트'를 진행, 1등 홍보대미왕상 1명 칠갑마루상품권 10만 원권, 2등 소통왕상 4명 칠갑마루상품권 5만 원권, 3등 서치왕상 10명 칠갑마루상품권 3만 원권, 4등 고집상 30명 스티커스. 교환권 1만 원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24일 청양군 사회관계망(SNS)과 일자리 정보망 배너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문자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민의 특화된 농촌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된 만큼 지속적인 구인·구직 정보 발굴과 공유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3개 과정 24회 실시

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제 교육과 연계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은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올 한 해 영농설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돋겠다."며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TF팀 본격 가동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 이현경 문화복지국장을 필두로 하여 시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1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팀)이 문화재단 사무실에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는 4월 21일부터 28일 까지 5일간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주축으로 온양온천역, 현충사, 곡교천 등지에서 분분 운영되어 아산시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흥겨워질 전망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난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과 군악 의장 퍼레이드, 프린지 공연도 한층 더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되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아산=리랑주기자

특히 63회 축제에서는 이순신장군배 거북선 노젓기 대회 등 불멸의 스타 이순신의 면면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선보이고, 각종 체험 부스 및 푸드존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운영된다.

축제 TF팀은 이달 축제의 단위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 부서가 동참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 홍보와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경구 시장은 10일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준비한 TF팀에 격려차 직접 방문해 "지난해 축제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서 한층 더 품격 있는 이순신 대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구 시장은 10일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준비한 TF팀에 격려차 직접 방문해 "지난해 축제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서 한층 더 품격 있는 이순신 대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온양4동 행복키움 나눔 봉사·회의

아산시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우재원·공판석)이 지난 9일 밀반찬 나눔 행사 및 1월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행복키움추진단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 45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하였다. 끝이어 진행한 정기회의에서는 설명절을 맞이 후원품 나눔사업을 논의하고 추진단이 나아갈 봉사 방향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재원 단장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많이 있으며 행복키움추진단이 이들을 찾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공판석 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앞장서는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무원들도 행복키움추진단을 적극 지원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은 개인, 단체, 기업 등 이웃을 위해 함께 봉사활회원을 향시 모집하고 있다.(회원가입 및 후원문의: 041-536-8439)

아산=리랑주기자

태안군 지역 학생 대상 '인공지능 캠프' 호응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서 태안초 학생 25명 대상 캠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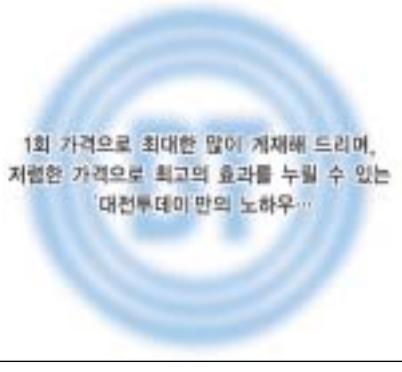


이터 분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AI 연구원 및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학과 등을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캠프를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이날 태안초를 시작으로 올해 추가적인 캠프 운영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태안 AI 융산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캠프 지속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군민이 가까운 태안 AI 융산원 운영에 나설 것"이라며 "융산원을 필두로 노인복지와 지역 상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지역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석성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현장 방문

박정현 부여군수, 연내 행정복지센터 착공·동부여 다목적체육관 설계 들어가



소상공인 대상 노후간판 교체 지원

서천군, 최대 200만원, 20개소 벽면이용간판 1개 지원

서천군이 오는 10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은 최대 2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간판 교체 비용의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은 22개소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 내 영업소를 둔 사업자 가운데 2023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노후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에 한한다.

다만, 선정자는 기존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과거 비슷한 간판개선 사업으로 간판을 교체한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 내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 ▲동의서(이행각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계룡시,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

계룡시(시장 이중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1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할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소유기간을 일월 계산하여 연납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 042-840-2455로 전화신청 후 기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운 만학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서천군, 초등·중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서천군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초등·중등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초등·중등 문해교육은 주 3회로 진행되며, 수강료와 교재비 용은 무료다.

학습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서천군 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천군 복지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치행정과(041-950-4623)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 문화재청장 만나 호소

개태사지 국가유적 승격·문화유산분야 국비 지원 건의



2023년 상·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계룡시,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2000만 원 확보

계룡시(시장 이중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상·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관리 추진 사항을 평가한 것으로, 계룡시는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18개소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물품지원 ▲물가

백성현 논산시장은 10일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함께 충청권 대표사찰인 관촉사를 방문하고, 관촉사, 쌍계사, 개태사 등 논산시의 주요 사찰과 관련된 문화유산분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백성현은 고려 석조불상의 대표 유산인 개태사 석조여래삼존입상을 국보로 승격시키고, 고려 태조의 영장을 봉안한 진전사찰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개태사지를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1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관촉사 내에 설법전을 건립하고, 쌍계사의 봉황루와 묘사채를 복원·

안정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우 시장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한 조치가 특별교부세 확보로 연결됐다"며, "소상공인과

남부 방언은 ▲군정 민원지적과 2번 칭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납부(신용카드) ▲은행 창구(CD/ATM)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등이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이 위택스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총 1000원이 세액 공제돼 이달 29일이나 말일에 이체된다.

신청용 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4년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서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김성구기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았으며, 동부여 다목적체육관은 동부여 지역의 대규모 체육행사를 위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설계공모 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와 동부여 다목적체육관을 조기에 준공하여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정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동석한 관계 실무진과 실현 가능성 및 정책적 효과 등을 타진하며 향후 논산시정에 관심을 두고 건의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산시의 문화유산 보전 노력에 관심을 표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장님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논산의 문화유산이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동행콘서트

박정현 부여군수= 12월 오전 10시 흥선면 토정리 호두농장 현장방문 및 흥선공문화체육회관 찾았다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오후 3시 구룡면 현암리 왕대추농가 현장방문 및 구룡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김기웅 서천군수= 12일 오전 10시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친환경벼)에 참석, 오후 10시 30분 마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오후 2시 30분 장항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계룡시 금암동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지역문제 해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나설 예정

계룡시 금암동(동장 이희목)은 지난 9일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8기 금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문화체육, 환경도시, 나눔복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금암동 현안사항을 살피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목효 위원장은 "금암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치위원회 출범 소감을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할인행사, 소상공인 역량 강화교육,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계룡=김성구기자



박정현 군수 주민교류의 장

주민자치센터에 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0일 초진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였다.

초진면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도에 건축되어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 활동과 교류의 장이 되었고 풀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면서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초진면 주민자치센터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늘어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의 대표적 협력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박정현 군수는 이규재 초진면 노인회장이 대표로 건의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귀 기울였다. 건물과 각종 시설물, 부속장비 등이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박정현 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소통 공간인 만큼 주민자치 실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며 "민들의 문화공유 공간인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해법을 찾아 풀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논산시 농·축협과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농협과 같이, 논산의 가치를 상생협력 간담회 열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농협 논산지부(지부장 김동진)는 최근 '농협과 함께, 논산의 가치를'이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시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의 큰 역할로 2023년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논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협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에도 농협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논산의 미래가치와 정책, 성장 가능성이 주목한 것이라 논산시는 평가했다.

다.

김동진 논산시지부장은 "논산시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각지의 참여와 성원으로 제도가 정착되었던"다고 하면서, "풀마을 좋은 담배품을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산시 농협 조합장들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6,452명이 참여하여 6억 5천만원을 모금하는 등 2023년 기부 목표액인 1억 원의 6.5배를 초과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변화하는 논산의 미래가치와 정책, 성장 가능성이 주목한 것이라 논산시는 평가했다.

새로운 만학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서천군, 초등·중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서천군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초등·중등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초등·중등 문해교육은 주 3회로 진행되며, 수강료와 교재비 용은 무료다.

학습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서천군 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천군 복지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치행정과(041-950-4623)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최원철 공주시장= 12월 오후 2시 공주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다.

주요업무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12일 오후 2시 2024년 주요업무보고(장소: 시청 종회의실)에 참석.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완석 서산시장= 12월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오전 11시 2024년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 위촉 및 간담회 참석, 오후 3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참석.

2024 업무계획보고회 주재



박범인 금산군수= 12일 오전 9시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보고회 주재.

보령시기업인협의회 신년하례회 제3·4대 회장이·취임식



보령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보령베이스에서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제3대·4대 회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로패 및 표창패 수여, 이·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3대 권혁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회장으로 역할을 할에 있어 보령시 기업인 그리고 시민의 지원이 있어 본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4대 이대로 신임회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표를 드린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기업인 협의회를 잘 이끌어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 보령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령시기업인협의회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인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활동, 투자유치, 노사문화 정착,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체령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대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주시, 올해 예산 10억원 투입… 지원 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물가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높은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총 1846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인 예산 10억원을 확보,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조건을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까지로 넓혔다.

따라서 올해는 2023년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카드 매출

액이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1%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오는 6월경으로,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사업자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041-840-8339)이나 공주시콜센터(☎041-84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전달식

차량 활용 오지마을 주민 대상 찾아가는 사회보장 서비스 등 계획

금산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협의체 김호택 공동위원장 등 1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차량 지원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모를 진행해 올해 1월 초

대상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차량을 활용해 오지

마을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

기 위한 찾아가는 사회보장 서비

스를 제공하고 관내 복지 사각지

대 발굴, 민관협력 서비스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호택 공동위원장은 “차량을 지원해 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금산지역 곳곳 소외된 이웃들과 더 가까이 만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인 군수는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

고 기습 따뜻한 복지 금산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함께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협의체와 지속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및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8% 할인

오는 16~31일까지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부제도는 자동차세 제 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납은 자동차에 대해 2만 2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시적 세부과장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낸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차에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34, 8345)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적 세부과장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100점 만점 중 91.45점… 전국 75개 기초 市 단위 평균대비 7.9점 초과

보령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된다.

보령시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1.45점을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체적으로는 22년 평가 대비 6.4점을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 분야에서 충실했던 목록 제공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29.41)를 받았고, 원문공개(15.76), 청구처리(27.50), 고객 관리(18.78)를 받아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 공무원이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시민뿐 아니라 국민이 보령시에 기자는 관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2024년도 정보공개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 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앞으로의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 보훈수당 2022년 대비 100% 인상

참전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수당 대상자 총 2,400여 명 지급

된다.

특히 국기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100% 인상을 완료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100% 인상을 위해 202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부터 보훈 수당을 60%씩 인상해 지급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충남 서산시가 어르신들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운영한다.

시는 11일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3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고령화, 학기족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많고 주민들의 우울감이 높은 마을 50개소로 선정됐다.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지정된 50개 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공예·신체 활동과 우울척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제공하고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자인 경우 1년 동안 심리정 및 정신건강 전담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고령화, 학기족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많고 주민들의 우울감이 높은 마을 50개소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 한방에 중증예방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마을 단위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 극복과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다각적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한방애 중풍예방교실 열어

금산군보건소, 15일부터 관내 9개 마을 경로당



금산군보건소는 이달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내 9개 마을 경로당에서 중풍예방! 건강하게 백세인생! 한방애 중풍예방교실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 한방애 중증예방을 통해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중증 위험 요인과 전조증상 및 합병증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활동, 당뇨 등 기초 질환을 통한 상담 및 맞춤 한방처방, 시침 등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맷돌 체조, 뇌 건강 놀이 교실, 쌍화탕 시음 등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상마을은 △부리면 현내1리 △복수면 곽남1리 △진산면 북산1리 △추부면 신평2리 △군북면 두두1리 △제원면 제원2리 △남일면 횡평1리 △남이면 하금1리 등 9개 마을이다.

보건소는 주민 연령분포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해 마을을 선정했다.

한방애 중풍예방교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750-4365)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중풍 전조증상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댐 수해복구 및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열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시장 윤석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 정용기는 10일 ‘댐 수해복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훈수기에 댐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수해복구 포함한 부유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내외 적 예전 변화에 맞춰 수해복구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 공사와 협력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복구를 수거 및 분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된 수해복구를 파쇄 및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

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그간 훈수기에 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수해복구 등은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이 경우, 여타 중간단계를 거치며 또 다른 부산물 및 주가 탄소 배출이 되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열원 에너지로 직접 활용할 경우 원전 연소를 이루어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댐 수해복구 활용 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복구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그 밖의 국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여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

진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4.4% 원가량의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높은 가중치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탄소중립 선언(20)’, ‘유기성 폐자원 활용 촉진법 시행(23)’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책 기조 강화와 함께, 벼려지는 산림자원 활용촉진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 규정 개정

‘21’ 등 탄소중립 및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자원 활용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교통공사 ‘현장이 답이다’…새해맞이 CEO 현장안전점검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은 새해를 맞이하여 9일부터 11일까지 CEO주관으로 차량기지, 타수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연규양대전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취약계층 사전점검과 함께 무사고 안전운행을 다짐하는 안전실천 다짐회를 진행했다.



충남교육청, 거울철 협약 수급 인정 위한 ‘사랑의 한혈’ 동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자철)은 1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혈액 버스를 지원받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2024년 1차 사랑의 한혈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동부위(Wee)센터, 전문심리치료지원 7개 기관과 협약 체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위(Wee)센터는 11일 심리·성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개의 전문심리치료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서대 강준모 부총장, ROTC 동계입영훈련 위문 방문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강준모 부총장이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장을 방문해 동계입영훈련 중인 호서대 학군단 64기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대전대 콘텐츠분야 IOC 협의회 ‘장비+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설명회 성료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LINC3.0사업단(단장 이영환 산학부총장)은 지난 10일 선사인호텔에서 ‘장비+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기철도공단 수도권본부, 2024년 안전강화(SAFETY+) 결의 대회 시행
국기철도공단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원일)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11일 수도권본부 3층 강당에서 안전강화 결의 대회를 원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지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은 지난 11일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본경)과 복지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위기 상황 해결과 기초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본경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새로운 프로젝트 밸류를 통해 지역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종만 관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간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으로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10% 할인 혜택과 기죽 상품 구매 시 에센스 증정, 30/70만원 이상 구매 시 피씨드로 디아이리/커비큐(위치추적 트래커)를 증정한다.

10층에서는 디아슨 신년맞이 특집전과 테팔 브리운 브랜드가 참여한 생활가전 특집전이 열린다.

지하2층 고메이494에서는 정유, 청과, 건강기프트, 와인 등 인기 설 선물을 미리 구매 할 수 있는 사전 예약 판매전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정 금액 구매 시 갤러리아상품권을 증정한다. 비노 494에서는 이탈리아 텔리리 와인 특집전과 프리미엄 위스키 특기전을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지하2층 고메이494에서는 디아슨 신년맞이 특집전과 테팔 브리운 브랜드가 참여한 생활가전 특집전이 열린다.

지하2층 고메이494에서는 정유, 청과, 건강기프트, 와인 등 인기 설 선물을 미리 구매 할 수 있는 사전 예약 판매전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정 금액 구매 시 갤러리아상품권을 증정한다. 비노 494에서는 이탈리아 텔리리 와인 특집전과 프리미엄 위스キー 특기전을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쇼핑>갤러리아타임월드, 신년맞이 다양한 행사 각종 행사장 및 매장서 진행

지하2층 고메이494,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와인, 위스키 특집전

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년맞이 다양한 행사를 각종 행사장 및 매장에 진행하고, 지하2층 고메이494에서는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와인, 위스키 특집전을 연다.

먼저, 1층 설화수에서는 플러스 포인트 이벤트와 100/200만원 이상 구매 시 5/10만원 원 갤러리아상품권 + 5/10만원 이웃백 식사권을 증정한다.

나스에서는 24년 신제품 제안과 15/30만원 이상 구매 시 1/2만원 갤러리아상품권을, 아베디에서는 일정금액 구매 시 사은 선물을 증정한다. 더불어 1층 화장품 브랜드에서 갤러리아카드, 멤버십 카드로 구매 시 갤러

리아상품권 또는 G캐시 적립 혜택을 준다.

4층 골든듀에서는 신년 특별 기획 4종, 베스트 팔찌 기획 5종을 20% 할인 판매하고 60만원 이상 구매 시 골든듀 디아이아몬드 러그 증정, 일정 금액 구매 시 갤러리아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세이로 단독 특별전, 바비라 40~50% 품목 할인전, 디디에우보 신상품 출시 기념 특별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디스퀘어2, 판가이아, 세이브 더너 등 브랜드가 참여한 MZ 팝업행사는 지하1층에서 피씨드로 팝업 행사는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피씨드로 팝업 오픈 기념

도시법」 등 내포신도시 건설 및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통과의 성과를 전하며 “지역에서 평생 살고, 평생 일해온 일꾼이 지역 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문표 의원은 “지역을 위해 땀 흘려 본 적도 없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비전도 없는 권력 팔이 하려는 분들이 명한 한장 들고 지역발전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흥문표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 외에도 예산군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전략을

예산군과 원팀으로 활약한 결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종사업비 규모 690억원에 달하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그린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조성사업비 확보 ▲예당호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청년문화스페이스 그래 조성 사업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흥문표 의원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관찰한 대내외적으로 ▲종사업비 규모 690억원에 달하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그린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조성사업비 확보 ▲예당호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청년문화스페이스 그래 조성 사업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흥선봉 전 예산군수가 참석하여 흥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했으며, 국민의 힘 소속 흥성군 선출직 광역·기초의원 전

예산발전 10년 앞당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와 결실 보고



국민의 힘 흥문표 국회의원(총남 흥성·예산)은 지난 8일 1,500여명 주민들이 대성황을 이룬 흥성군 의정보고회에 이어 10일 예산군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의 예산군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성과와 결실’의 정치, 흥문표 의원 예산군 의정보고회에는 ‘진짜일꾼 흥문표’ ‘우리가 흥문표다’라는 열띤 구호제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명수 국회의원, 최재구 예산군수,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 예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원팀으로 허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흥선봉 전 예산군수가 참석하여 흥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했으며, 국민의

흥문표 의원은 “지역을 오가며 관찰한 대내외적으로 ▲종사업비 규모 690억원에 달하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그린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조성사업비 확보 ▲예당호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청년문화스페이스 그래 조성 사업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한기자

‘성과와 결실’의 정치, 흥문표 의원 예산군 의정보고회 ‘성황’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지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은 지난 11일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본경)과 복지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위기 상황 해결과 기초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본경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리아상품권 또는 G캐시 적립 혜택을 준다.

4층 골든듀에서는 신년 특별 기획 4종, 베스트 팔찌 기획 5종을 20% 할인 판매하고 60만원 이상 구매 시 골든듀 디아이아몬드 러그 증정, 일정 금액 구매 시 갤러리아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세이로 단독 특별전, 바비라 40~50% 품목 할인전, 디디에우보 신상품 출시 기념 특별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디스퀘어2, 판가이아, 세이브 더너 등 브랜드가 참여한 MZ 팝업행사는 지하1층에서 피씨드로 팝업 행사는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피씨드로 팝업 오픈 기념

도시법」 등 내포신도시 건설 및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통과의 성과를 전하며 “지역에서 평생 살고, 평생 일해온 일꾼이 지역 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문표 의원은 “지역을 위해 땀 흘려 본 적도 없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비전도 없는 권력 팔이 하려는 분들이 명한 한장 들고 지역발전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흥문표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 외에도 예산군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전략을

예산군과 원팀으로 활약한 결과 올해 주요 사업으로 ▲



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혁신기업과 CES2024 참가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서 K-water 전시관 개관행사가 진행되었다.



박희조 동구청장, 지역산업 해외 진출 위한 지·산·학 간담회 참석
 박희조 동구청장은 'CES 2024' 참관 첫째 날인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더 올리언스 호텔에서 열린 대전 지역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산·학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구와 대학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산림청-육군제32사단 업무협약체결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11일 육군 제32보병사단(소장 김관수)과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학년도 제15차 (임시)교무위원회
 일시 : 2023. 1. 10. 10:00 ~ 10:05 장소 : 대전대학교 21세기관 대회의실
 학생 현장실습 만족도 향상·우수기업 발굴 공로 배재대 이금순연
 구원 사회부총리 표창 이금순 배재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현장실습 이수학생 증가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립한밭대, 지역청소년을 위한 반도체 제조공정 교육 성료 한밭 대학교(총장 오용준) 미래창의인재 교육원은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5일까지 동아미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교육'을 3차례에 걸쳐 총 9일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시 희망봉사단, 음봉면에 따뜻한 사랑의 물품 후원 아산시 음봉면은 1월 10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아산시 희망봉사단(단장 김영우)으로부터 취약계층 및 독거기구를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

건양대, 중국 대학들과 교류확대 통해 글로벌 대학 '발돋움'

신규 추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

수년 전부터 중국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온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가 대학 간 협업을 넘어 중외합작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규 추진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건양대의 국제교류 전담 부서인 국제교류원(원장 이길재) 소연 교수와 고동연 직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충청시를 방문해 청장사법대학, 충청유아사법고등전문대학, 충청싼사의약고등전문대학, 충청도시관리직업대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중외합작프로그램, 2024년 하계방학 단기연수 프로그램 추진 등 양교간 교류협력을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청장사법대학, 충청도시관리직업대학은 의료보건계열에 강점이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웹을 운영할 계획이며, 9일 오후 청장사법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고동연 직원의 설명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충청유아사법고등전문대학은 중외합작프로그램을 통해 양교간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충청싼사의약고등전문대학은 의료보건계열에 강점이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중외합작프로그램은 중국 교육 당국의 허가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학생 모집, 수업, 졸업까지 전 과정을 양 대학이 공동 운영하

는 것으로 중국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넓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양대 국제교류원 원장은 "건양대는 2021년부터 제약 생명공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가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중국 자매대학 관계자 방한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매대학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학교 및 학생들에게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 국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성복기자



금강청장, 환경컨설팅 중점

관리사업장 현장 점검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 환경컨설팅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은 오염 물질 배출업체를 방문하여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원 내용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여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고문의 042)538-3030

자유총연맹 서산지회, 2023년 사업평가회 가져



등을 2023년 주요 활동사업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는 김순희, 최성삼 회원이, 서산시장상을, 김순희 정종원, 시의회장상을, 정정숙, 흥성운, 국회의원 수상했다.

김영식 지회장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되는 해라면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라면서 더욱 발전한 서산지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산지회를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됐다면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지회(김영석 회장)는 11일 서산 모처에서 각 기관장과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평가회를 가졌다.

김영석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 추모행사, 현충일 소탐산 참배, 전국나라사랑스피치서산에선 전, 자유수호를 위한 합동 위령제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 과수화상병 귀양 제거 현장 점검

충남이산·천안 배 과수원 찾아 귀양 제거·기지치기 작업 상황 살펴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은 11일, 충남 아산·천안의 배 과수원을 차례로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귀양 제거 작업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유통하는 귀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병해충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귀양 제거와 함께 감염 의심 나무를 미리 발견해 없애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에게 '귀양 제거, 가지치기 작업용 농기구를

수시로 소독해 나무간 병원균이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차장은 충남지역 과수화상병 예방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해 사과, 배 생육기에 잦은 비와 고온 현상으로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 과수원을 중심으로 중전 예방관찰(예찰), 정밀진단을 실시해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귀양 제거, 의심 나무 신고, 방역 수

적 준수 등 의무 이행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달라"라고 지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지자체와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예찰)과 귀양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과수 농가와 농작업자의 자가 예방관찰(예찰)과 의심 나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청소노동자들에 건강식품 선물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경영학과는 학과 학생회에서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구매해 사회과학대학 청소·시설 담당자 등에게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영학과 학생회는 학생회비를 절약해 마련한 돈으로 3만원 상당의 흥삼세트 6개를 구입해 청소·시설 담당자들에게 선물했다.

김보성 경영학과 학생회장은 "만나면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도와주는 청소·시설

담당자들에게 작지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학과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호정 목원대 안전관리처장은 "학생 스스로 학교 구성원 모두와 어우러져라는 모습에 대견함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한편 목원대 경영학과는 2024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충청·대전권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중 최고 수준의 지원율을 기록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선기자



선문대, 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 교육 봉사

11년째 교육 및 의료 봉사로 사랑 나눔 실천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캄보디아 크리체주(州) 콜라(Kolab)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및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문대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SDGs봉사단(단장 강동훈·선문대 ESG사회공헌센터장) 중심으로 (사)자원봉사애원과 연계해 300 명의 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봉사가 진행된 크리체주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버스로 7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의료 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가 간절한 상황이다.

선문대는 국제의료봉사단을 구

성해 201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크리체 지역에서 봉사를 해왔다. 캄보디아 카오크랭 섬에는 전문 의료 시설을 세우고, 세계평화여성연합의 후원으로 크리체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에 '큰 꿈 도서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선문대 학생들은 현지 요청으로 보건 위생, 한국 문화, 과학, 미술, 체육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위상과 관련해 양치질, 손씻기,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과 200 그루의 나무 심기를 함께 하면서 정서 힐링에 도움을 주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체계적 수업설계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법' 교수법 세미나

한밭대, 교내 국제교류관에서 교수와 강사 대상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경일대학교 평생 교육학부 유미나 교수가 '체계적 수업설계를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체계적인 강의계획서 작성을 위한 ▲좋은 수업(체계적 수업)의 정의 ▲강의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좋은 강의계획서 예시 ▲강의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국립한밭대학교는 이번 달 23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작성 기간으로, 참여 교수들은 "강의계획서 작성과 수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니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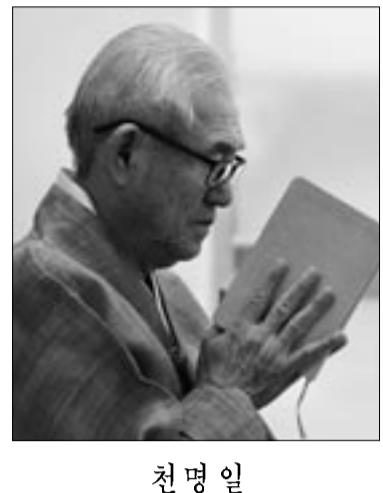
이번 교수법 세미나는 새 학기

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강의계획

서 작성과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천명일 '이야기천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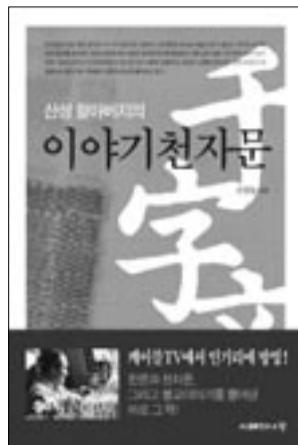
辰宿列張 <辰별진 宿갈숙 列별일 열 張베풀 장>



천명일

하늘에는 빛나는
12진성辰星과 28숙
宿이라는 흑성 黑星
으로 배열되었도다

우주에는 태양처럼
항상 빛을 밝히는
항성恒星이 있다. 이
것을 일묘이라 하고,
태양 빛을 받아 광명
을 내는 월과 같은
것이 있으며, 또 전
파성電波星처럼 한
시적으로 빛을 밝히다가 없어지는
별인 진辰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지
구처럼 빛과 열을
잃어버린 반수면
상태의 숙성宿星
이 있으며, 영면
에서 깨어나지 못
하는 흑성 黑星도
있다. 빛나는 이
것을 오대성五大
星이라 이름하고,
이를 나타낸 시문
詩文이 바로 진숙
열장辰宿列張이

고 있다.
우주에 나열되어 있는 천체(周
天)의 도수를 12방위로 보고 그 방
위에 배열된 별들의 이름을 12진辰
이라 부른다. 또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 7성星이 배열되어 있
는데, 그 별들의 이름을 28숙宿이라
라 한다.
이 12진辰과 28숙宿은 우리가 사
는 지구에 좋지 못한 재앙을 일으
킨다고 경전에서 밝히고 있다.
그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주위
에 배열 된 상태를 4구 시어詩語로
진숙열장辰宿列張이라 했다고 필
자는 본다.

시의 향기



현영길 시인의 '서울찬가'

노을

세상 불빛 노을
세상 아름다움 노을
세상 아름다움 지는 날 있다네!

노을 지면 우리네! 삶 지고 마는데
영혼 향한 우리네! 삶 노을 아는가?
삶 노을 지고 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사실 아는가?
암을 만날 수 없는가?

▶ 시작 노트: 세상 풍요로 나이가는 우리네! 삶 모습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네! 삶 아름다움으로 나이가는 밤길 세상의 노을이 지듯 우리네! 인생 노을 지는 날 온다
네! 임이 기다리는 마음 그대 아는가?

시의 향기



노중하 시인의 '봄내골 사랑'

갑진년 용띠의 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계묘년
하얀 눈이 천지 사방을 덮어버리니
온 세상이 훌기분하고 깨끗한 세상
미움을 가다듬고 새로운 희망을 찾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청룡의 해
기암절벽의 높은 산에는 구름 걷히고
밝은 태양이 세상을 밝혀주네!

성미 급한 복수초 눈속을 헤쳐 나오는 욕망

해마다 정월 초하루 계획을 세워라.
봄이면 씨앗 뿌려 풍요로움 만끽하듯
노력 없는 자, 훗날 후회하며 통곡하리
직시 적소에 필요한 실천과 용기를 가져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아
세월이 훌러 갈수록 인생 계급장만들어
도전과 모험심, 경험을 축적하라
세상의 다양한 지식 쌓이면 민족하리라

예산군농기센터,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스마트 농업 통한 청년농 육성 · 농업 성장 기반 마련 역량 집중

예산군 농업 기술 센터(소장 이순주)는 스마트 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예산 농업 발전 및 농촌 구현을 위해 2024년 농업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최근 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며, 7개 분야 50개 사업(113개소)이 시행되고 29억여 원

규모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 육성 분야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 등 3개 사업 △식량·작물 분야 벼 직 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등 10개 사업 △경제작물 분야 시설원예 생육 환경 개선 시범 등 8개 사업 △귀농지원 분야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등 8개 사업 △축산개발 분야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시범 등 7

개 사업 △과수기술 분야 다축과원 기반조성 등 6개 사업 △생활자원 분야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 등 8개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농업 기술 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 기술 센터 홈페이지 (<http://www.yesan.go.kr/farmdo>)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 기술 센터 기획 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역량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지방 세 및 세외 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예산 =박제화 기자

* 2023년 이송 심정지환자(702명)
증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회복률
11.7%(82명)

발생 장소별로는 집 64.5%(35,925 건), 도로 · 도로 외 교통지역 16.1%(8,984건), 상업시설 5.7%(3,183건) 등의 순으로 주거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구급 이송이 절반을 넘었다.

기간별로 보면 8월이 9.6%(5,279 건)로 가장 많았고, 5월 8.9%(4,937 건), 7월 8.8%(4,850건) 순이었으며 5월, 7월, 8월의 구급이송건수가 전체의 27.3% 정도를 차지했다.

강대훈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올해는 구급차 2대를 증차하는 등 늘어나는 구급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위해 단순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 55,660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232명의 시민이 구급서비스를 요청했고 6분에 한 번씩 출동한 것이다.

5년 전인 2018년과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구급출동 건수 증가율은 각각 9.7%(2018년 77,066건), 37.4%(2013년 61,531건)로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구급 출동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성심정지* 등 질병이 39,139명(70.3%)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 8,317명(14.9%), 교통사고 3,676명(6.6%)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9,851명(17.7%), 60대 9,761명(17.5%), 70대 9,750명(17.5%) 순으로 집계됐다.

총 8만4550건 출동해 5만5660명 이송, 5년 전 대비 9.7% 증가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구급활동

을 분석한 결과 총 84,550건을 출동

오피니언

사 설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절실하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부터) 손실 확장 사례가 발생한 흠풍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핵심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LS 종 판매액의 91.5%가 개인투자자(17조7천억 원)로, 이 중 65세 이상이 30.5%(5조4천억 원)에 이른다고 집계됐다. 과연 이들 고령층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맡겼을지 궁금하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웬만한 시중은행과 증권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지난달에는 채권형 페 · 신탁 업무 조사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경영진 결정 하에 불법 관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 이익으로 돌려막고, (만기, 신용등급 등) 계약과 다른 채권을 편입 · 운용한 혐의이다. 페 어카운트 · 특정금전신탁은 고객과의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신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수 고객을 모아 운용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에 특화된 상품이다. 당연히 계약대로 운용돼야 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 기본 원칙들이 다 무너졌다.

이런 투자자 피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경제 고통 속 서민 한숨 달래 줘야

은행들이 담보대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유 목적은 소비자에겐 불리하고 은행엔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형적인 불공정 담합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0조원이었고, 1조원이 넘는 성과금 전치가 떨어졌다. 고금리 기조 국면에 이자 증세에 시황을 겪다가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에 대해선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외연한 셈이다.

서민 경제는 최근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물 가격 20%나 뛰어올랐고, 농산물(6.0%)과 수산물(5.4%)까지 상승해 식탁 경제가 위험 수준이다. 9조1천억원(지난해 신용카드 리볼빙과 카드론 대환대출 전액)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에 활용됐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 규모와 비중은 각각 450만 명, 22.6%로 사상 최대다. 이마저도 여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하거나 해약했다. 그럼에도 파산 직전의 개인회생 신청은 9만437건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서민 삶을 가리키는 지표를 들자면 이 외에도 끝이 없다.

공정위의 세부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제재 대상인 KB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은행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 대책을 시장과 금융당국에 이해 시켜야 한다. 은행에 대한 작업이 마감되면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위법이 없는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석유와 주류, 아파트 입찰, 폐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집 품목으로 꼽은 만큼 이번 기회에 서민을 위협하는 시장 내 모든 위법 사안을 적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대전시, 봄철 산불 대비 시 · 구 대책회의 개최

금산 · 대전산불 피해지 복구 및 산불대응력 강화 방안 논의



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작년 산불 피해지인 산지동에 조림 ·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진화입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감시 ICT플랫폼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불진화 · 관제차 구입, 공무원 산불 진화대 운영 등 필요한 산불 진화장비 · 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고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로 산불 진화 인력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산불 취약기(3월) 도래 전에 영농부산불을 완료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가용자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노후화된 산불 진화장비를 교체 ·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 d-mail@hammai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일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